

풍성한 축제로 전통시장 활기 불어넣는다

전주시, 신중양시장·서부시장서 문화축제 열려... 와글와글시장가요제·추석맞이 장보기 행사 등 추진

사람과 정이 가득한 전주전통시장에서 각종 문화축제까지 더해져 시민과 관광객의 발걸음으로 가득 채워지고 있다.

전주시는 신중양시장에서 '한사발 막걸리 축제'가 서부시장에서 맥주와 함께 문화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THE~좋은밤 문화&가막축제' 등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문화축제를 잇따라 열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사람과 정이 가득한 전주전통시장에서 각종 문화축제까지 더해져 시민과 관광객의 발걸음으로 가득 채워지고 있다.(사진은 신중양시장 '한사발 막걸리 축제' 모습)

시는 9월의 전통시장의 열기를 한가 위까지 이어갈 예정이다.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21일부터 26일 4일간, 전통시장 남부, 모래내, 신중양시장, 중앙상가시장, 서부시장에서 진행한다. 시는 전주시 산하기관 및 시민단체 등 많은 시민의 참여로 전통시장 살리기에 동참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장보기 행사 첫날인 오는 21일에는 전북은행 시청점과 협력해 온누리상품권 판매 및 홍보를 신중양시장 광장에서 추진한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곳, 전통시장에서의 풍성한 축제로 전통시장의 활기를 되찾고 시장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한가위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리 부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하루 2천여명의 방문객들이 이곳을 찾고 있다. 특히 지난 8월 4일 촬영한 KBS 2TV 1박2일 '잘먹고잘사는법' 전주 남부시장 야시장편이 10일 방송으로 소개됐다. 시는 이번 방송이 송출되면 더 많은 방문객이 야시장을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같은날, 서부시장에서는 더위가 쉬이 물러가지 않는 가을밤에 시원한 맥주와 문화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제5회 THE~좋은밤 문화&가막축제'로 채워졌다. 이 축제에는 양 일간만 5천여명의 시민들이 찾아 전통시장의 정과

흥을 만끽했다. 이밖에 남부시장에서는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밤마다 야시장이 열려 불야성을 이어가고 있다. 시는 많은 방문객이 이곳을 찾을 수 있도록 지난 8월 먹거리부스를 정비하고, 신메뉴 8종류를 포함했다. 현재 34종류의 다양한 먹거

전주음식 학술가치 제고 포럼 개최

K-푸드 과학적 학술가치·문화 콘텐츠 발굴 연구 정보 공유

전주시와 전북대학교 K-Food 연구센터(센터장 차연수)는 지난 8일 전북대학교 뉴실크로드센터 동행홀에서 국내 K-푸드 전문가 및 시민들을 대상으로 '전주음식 학술가치 제고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K-푸드 학술가치 발굴: 전주음식의 과학적 향연이라는 주제로 K-푸드(전주음식)의 과학적 학술가치 및 문화 콘텐츠 발굴을 위해 전문가들이 연구·분석한 정보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서는 국내 여러 분야의 석학들이 참석해 K-푸드(전주음식)의 과학과 철학 및 콘텐츠 특징, 전주음식의 가치 인식, 세계화 전략 및 시사패턴 분석이라는 세부 주제로 진행됐다. 인문과학과 사회과학, 자연과학 측면 등에서 K-푸드(전주음식)의 과학적 근거 및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강연과, K-푸드 전문가들의 학술좌담회



전주시와 전북대학교 K-Food 연구센터는 지난 8일 전북대학교 뉴실크로드센터 동행홀에서 국내 K-푸드 전문가 및 시민들을 대상으로 '전주음식 학술가치 제고 포럼'을 개최했다.

를 통해 K-푸드의 과학적 근거 자료 확보 방안이 모색됐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 평생학습관, '시민인문세미나' 수강생 모집

전주시 평생학습관은 오는 13일까지 인문학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는 '시민인문세미나'를 참여할 수강생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9월부터 10월까지 운영되는 이번 시민인문세미나 시즌3는 읽기 어려운 인문학 서적을 인문매개자의 강독으로 기본 개념을 익히고 토론을 통해

서로 배우는 집단지성의 장으로 꾸며진다.

시민인문세미나 시즌3는 △음악&그림책 세미나 △장자 세미나 △투소 세미나 △인문글쓰기 세미나 4개 주제로 운영된다.

주제별 강사는 '그림책과 음악으로 만나는 인문학'은 김경배 원광대 교수

와 김경은 전주시립합창단원이, '장자 읽기 세미나'는 이형성 전남대 학술연구교수, '투소 에필 읽기'는 성기석 인문공간 파사주 대표, 인문 글쓰기 세미나는 이선 철학박사가 각각 맡는다.

특히, 기획세미나로 준비된 '그림책과 음악치유' 세미나의 경우 시민들이 그림책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음악을 통해 치유 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인문세미나는 세미나별 8회씩 운영되며, 전주시민이면 누구나 전주시평생학습관 누리집(e.jonju.go.kr) 또는 전화(063-281-5367)로 신청하면 된다.

권인숙 전주시 평생학습관장은 "인문세미나는 인문학의 수동적 참여에서 능동적 참여방식"이라며 "시민들이 세미나를 통해 삶의 의미를 찾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소상공인 제품 우수성 알린다

전주시, 황금녘 동행축제 온라인 판매 기획전 진행

전주시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이영로)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 상품의 판로 확대를 위한 '2023 황금녘 동행축제 온라인 판매 기획전'을 소담스퀘어전주의 디지털전환 지원사업과 연계해 진행한다



라이브커머스 기획전 일정보

소담스퀘어전주는 중소기업본부와 중소기업유통센터, 전주시를 주관으로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의 디지털전환을 촉진하는 전문가이다.

먼저, 시는 온라인 유통 플랫폼 '티몬'과 대한민국 공공 온라인 쇼핑몰 '우체국쇼핑'에서 8월 30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주·전북지역 우수 소상공인 제품 온라인몰 할인 기획전을 진행한다.

온라인몰 할인 기획전은 티몬과 우체국쇼핑에서 판매 중인 전주·전북지역 소상공인 제품을 대상으로 할인 쿠폰을 지원·제공하여 기존 가격 대비 10%~30%(최대 5000원까지)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지역 소상공인 제품의 우수성을 알리는 행사이다.

이어서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소담스퀘어전주(덕진구 서귀로 107)에 구축된 5개의 스튜디오에서는 전주와 전북지역의 우수 소상공인 제품을 홍보·판매하는 릴레

이 라이브커머스로 진행한다. 라이브커머스 기획전에는 총 15개 업체가 참여하며, △사과, 배, 훈합세트, 벌집꿀, 발효차, 커피세트 등과 같은 추석맞이 선물세트와 △우리 지역 맛집 음식을 집에서 손쉽게 만날 수 있는 감자탕, 갈비탕, 꽃게탕, 갈비탕, 아로사태, 전골 등을 최대 4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소담스퀘어전주의 라이브커머스는 네이버쇼핑라이브를 통해 송출되며, 네이버쇼핑라이브에서 '전라북도 로컬마켓' 또는 'JICA'를 검색하면 라이브커머스를 시청할 수 있다.

소담스퀘어전주의 온라인 판매 기획전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소담스퀘어 전주 블로그(blog.naver.com/jica14000) 또는 인스타그램(@jks_100)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옥기 기자

청소년 진로체험 프로그램 'GO! 직진'

야호교육통합지원센터, 여러 직업 종사 중인 전문가 초청 정보 제공

야호교육통합지원센터(센터장 안성균)가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진로체험 프로그램인 'GO! 직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2회차를 맞는 GO! 직진 사업은 여러 직업에 종사 중인 지역 전문가들을 초청해 해당 직업을 찾기 위한 준비 과정과 노력, 요구되는 지식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청소년들의 진로 설정을 지원하기 위해 구상됐다.

프로그램은 오는 12~14일 오전, 오후 각 2시간씩 총 6회 진행되며, 지역 중·고교 6개 학급이 1회차씩 참여하게 된다.

첫날인 12일에는 브레이킹 국가대표 초대 감독이자 비보이 세계 챔피언에 빛나는 비보이그룹 라스트포원 조성국 대표가 강사로 참여해 비보이 직업과 활동을 소개하고 라스트포원 멤버들과 비보이 시연에 나선다.

다음날인 13일에는 유기농 빵으로 유명한 더페퍼제빵의 국태봉 대표가 제빵사의 길로 들어선 배경과 노력, 건강한 빵을 만들고자 하는 신념 등을 소개하고 참여 청소년과 제빵 체험을 진행한다.

마지막 날인 14일에는 전주시 고문 변호사인 법률사무소 한서의 유아를 변호사가 인권의 수호자인 변호사의 역할과 법조인이 되기 위한 방법, 이해하기 쉬운 법률 사례 등을 강연한다.

한편, 전주시와 전주교육지원청의 협력을 바탕으로 운영 중인 야호교육통합지원센터는 향후 GO! 직진 진로체험프로그램 외에도 지역 전문가, 청년과 청소년 간 멘토링 프로그램 등 신규 사업을 지속적 개발 운영해 지역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김옥기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²,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